

## 아열대 작물 백향과(*Passiflora edulis* Sims)의 국내 재배현황 및 재배관리기술 실태

김창영<sup>1</sup>, 이두원<sup>1</sup>, 오대민<sup>1</sup>, 고호철<sup>2\*</sup>

<sup>1</sup>(사)농진중앙회 연구위원, <sup>2</sup>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실 연구사

### Current Situations of Domestic Cultivation and Cultivation Management Technology in Passion Fruit (*Passiflora edulis* Sims)

Chang-Yung Kim<sup>1</sup>, Doo-Weon Lee<sup>1</sup>, Dea-Min Oh<sup>1</sup> and Ho-Cheol Ko<sup>2\*</sup>

<sup>1</sup>Senior Researcher Nongjin Central Committee, Suwon, 16432, Korea

<sup>2</sup>Researcher Client Service Division, Planning and Coordination Bureau, RDA, Jeonju 54874, Korea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과거에는 재배되지 않았던 아열대 작물의 국내재배가 확대되고 있다. 백향과(*Passiflora edulis* Sims)는 브라질 남부지역이 원산지인 아열대작물로 국내에서도 전국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어서, 국내 재배현황과 재배농가의 관리기술 실태를 조사하여 재배 애로사항 및 발전과제를 도출코저 하였다. 백향과의 국내 재배는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17년에는 201농가 54.7ha로 정점을 이루고, 점차 감소하여 2019년에는 156농가 36.5ha에서 재배되고 있다. 재배농가가 많았던 지역은 남원, 담양, 화순, 김천, 고창 등 이었다. 백향과의 재배체계는 대부분의 농가가 비닐하우스 시설에서 겨울철 난방에 의한 다년 재배로 1년 2회 수확하고 있으며, 극히 일부농가는 1년 재배체계로 매년 묘목을 다시 심는 형태이다. 백향과의 국내 육성품종은 없으며, 외국에서 도입한 자색종 또는 교잡종을 주로 재배하고 있다. 현재 국립종자원에 ‘일반종’, ‘타이농1하오’, ‘황금’ 3품종이 생산/수입 판매 신고되어 있다. 초기에 도입한 접목묘를 재배하면서 국내에서 삼목묘를 육성하여 많은 농가가 재배하고 있다. 백향과는 덩굴성이기 때문에 지주를 설치하여 재배하는데 재식거리, 수형, 가지유인 등을 농가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화기에 인공수분 작업이 필요하고, 수확은 과일이 성숙하여 저절로 낙과하면 주어서 수확한 과일은 주로 생과로 판매하는데 전화 및 인터넷 주문에 의한 직거래가 가장 많고, 일부 마트 및 로컬푸드에 판매하고 있다. 국내재배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시 되는 기술개발 과제는 적응 품종육성 및 무병묘 생산 보급, 고품질 백향과 생산을 위한 재배관리 기술, 시설재배 환경관리 기술, 소비 증대를 위한 가공 이용 기술 개발 등으로 전문기관에서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어:** 백향과, 아열대작물, 재배현황, 농가, 재배기술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세부과제번호: PJ01490201)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Corresponding author) hchko@korea.kr, Tel: +82-63-238-0591